

<기획논문>

# 근대시기 중국동북지역 민간신앙의 ‘복합성’\*

- 이민의 유입에 따른 민간신앙의  
이식과 융합을 중심으로 -

박 경 식\*\*

## 목차

- I. 머리말
- II. 동북지역의 고유성과 민간신앙의 이식
- III. 동북지역의 민간신앙의 ‘복합성’
  - 1. 샤머니즘의 상대적 활성화
  - 2. 지역적 편차와 지역성의 반영
  - 3. ‘多神混雜性’의 심화
  - 4. 자연숭배 경향의 강세
- VI. 맺음말

## I. 머리말

본고는 중층적 역사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검증된, 그리고 중국인의 일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62-A00002).

\*\*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조교수.

상생활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무형의 사회운영시스템으로서의 ‘관행’을 통해, 중국사회의 통시적 변화와 지속을 조망하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sup>1)</sup> 민간신앙은 고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국인의 일상적인 삶과 민간사회의 변화와 지속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서, 기층민중의 생활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중국 사회와 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였으며, 장기적인 역사변천과정에 있어 일반민중의 사유방식과 사회관계,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그래서 본고는 ‘관행’과 민간신앙의 근접성에 착안하고 여기에 시기를 근대로 한정함으로써, 근대시기 민간신앙을 통해 ‘관행’이 근대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 접근해 보려는 것이다.<sup>2)</sup>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근대 이후 동북지역의 민간신앙을 대규모 이민에 따른 이식과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신앙’이라는 용어는 ‘민간의 원시신앙으로부터 변이되고 전승되어진 사유 관념의 습속이자 관례’<sup>3)</sup>라는 의미로 흔하게 쓰이고 있지만, 크게 보면 몇 가지 층위를 포함한다. 첫째, 불교나 도교, 유교, 이슬람교, 기독교와 같은 지배적 ‘기성종교’가 있는데, 이는 정교하게 정리된 교리와 방대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일정한 교리와 조직체계는 갖추고 있으나 공인된 ‘기성종교’와는 구분되는 ‘민간비밀종교결사’가 ‘邪教’로 규정되어 국가권력의 탄압을 받곤 했으나 민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했다. 셋째, 歷代로 『祀典』에 기재되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正祀’와 구분되어 ‘淫祀’라 칭해졌지만,<sup>4)</sup> 민간이 주도해 제사를 지내고 廟會를

1) ‘관행’을 이렇게 인식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전인갑/장정아, 『중국 관행 연구와 중국 연구의 재구성 - 試論의 接近』, 『中國近現代史研究』 제48집, 2010.12. 참조.

2) 이러한 문제의식은 박경석, 『민국시기 동북지역의 민간종교결사와 지방당국의 대응』, 『중앙사론』 제39집, 2014.6, 253~254쪽에서도 공유하고 있는데, 전술한 논문은 민간종교결사를 통해 접근하였고, 본고는 일반의 ‘민간신앙활동’에 주목한다.

3) 江沛, 『近代華北城鄉民間信仰述評』, 『河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27卷 第4期, 2002, 18쪽.

개최하는 광범위한 신앙 활동이 공개적으로 전개되었다. 여기에는 呪術, 占卜 및 예언, 風水, 禁忌 등 지배세력에 의해 '迷信'으로 치부되었던 일상적인 신앙행위가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세 번째 좁은 의미의 '민간신앙'을 대상으로 삼는다. 국가권력이 일정 정도 관여하지만, 말 그대로 '예부터 전해져 내려와 민간에서 일상적으로 영위되는, 체계화되지 않은 신앙 활동'을 의미한다.

동북지역에 주목한 것은 우선 중국사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지역성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중국사는 워낙에 다양한 권역이 오랜 통합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歷史體이므로 지역연구를 통해 각 권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또한, '관행'의 근대적 재구성 양상을 지역성과 결부지어 접근하는 것 자체도 의미 있는 일이다.

더욱이 동북지역의 민간신앙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기존의 연구가 상당히 소략하다. 민간신앙은 주요한 사회·문화적 현상의 하나로서 20세기 초반부터 존재양태와 사회적 기능, 지역사회 및 국가권력과의 관계 등을 비롯해 다양한 방면에서 수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sup>5)</sup> 하지만, 동북지역에 한정해보면 매우 소략한 편이다. 遼寧省의 寺廟를 포괄적으로

4) 正祀와 淫祀는 유동적이다. 正祀가 淫祀가 되고 淫祀가 正祀가 되기도 한다. 正祀와 淫祀를 구분하고, 淫祀를 철폐하려는 것은 漢代부터 계속되어 온 정책이다.(曹貞恩, 『崇拜와 禁止: 清代 福建의 五瘟神 信仰과 國家權力』, 『明清史研究』 제27집, 2007.4, 328쪽.) 清代만 보면, 正祀의 대상은 社稷, 風雲雷雨, 山川, 公厲, 先農, 孔子(從祀 포함), 城隍, 關羽, 文昌 등이었다.(이윤석, 『중국 근세의 祠廟와 지방 통치 - 全國通祀 및 神像存廢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제119집, 2012.6, 131쪽.) 淫祀의 숭배 대상, 즉 '民神'으로는 자연 숭배에 해당하는 天地神, 太陽神, 月神, 水神, 火神, 山神, 牛王, 馬王, 蟲王, 胡仙, 黃仙, 白仙, 柳仙, 灰仙, 苗王, 瓜王 등, 생활을 보호하는 城隍, 子孫娘娘, 送子觀音, 送子張仙, 瘟神, 痘神, 藥王, 門神, 財神, 福神, 祿神, 壽神, 喜神, 關帝, 龍神 등, 行業을 보호하는 酒仙杜康, 茶神陸羽, 獄神臯陶, 窯神太上老君, 梨園神唐明皇, 飲食業 灶君, 文人文昌帝君, 木匠魯班 등등 무수히 많다.(黃雲鶴, 『清至民國時期的東北民神』, 『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7年 第3期, 2007.6, 94~95쪽.)

5) 王健, 『近年來民間信仰問題研究的回顧與思考: 社會史角度的考察』, 『史學月刊』 2005年 第1期; 馬新, 『關於民間信仰史研究中的幾個問題』, 『民俗研究』 2010年 第1期. 참조.

다른 박사논문<sup>6)</sup> 이외에, 專論으로는 동북지역의 ‘民神’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논문이나<sup>7)</sup> 祈雨 信仰의 양상을 고찰한 연구<sup>8)</sup> 정도가 있다. 이들 연구는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본고와 맥락을 같이 하지는 않는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대규모 이민의 유입과 민간신앙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지에서 동북으로의 대규모 이민이 동북사회에 끼친 영향을 다루고 있는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sup>9)</sup> 대개는 이민과 함께 내지의 민간신앙이 동북에 이식되었다는 취지이다. 이처럼 이민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민간신앙의 이식이라는 측면은 이미 지적되어 온 바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다루어졌고 廟宇의 건립이라는 하드웨어 위주로 고찰되었다. 본고에서는 ‘신앙생활’이라는 소프트웨어 측면에 주목함으로써 이식의 또 다른 측면을 좀 더 부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말하자면 이식 및 복제 과정에서의 변이에 주목함으로써 동북지역 고유의 특성을 다소나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발전된 중심지역이나 城邑에 집중해 고찰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鄉村이나 궁벽한 지역까지 배려함으로써, 민간신앙의 이식 과정을 좀 더 다채롭게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문제의식과 연구 상황을 바탕으로, 본고는 먼저 내지의 신앙요소가 동북에 이식되는 양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주로는 동북지역 민간신앙의 지역적 특성에 주목할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19세기 중반 이후에서 만주국 성립 이전까지의 상황에 주목한다. 주지하듯이 1860년대에

- 
- 6) 劉揚, 『近代遼寧地域社會視野下的寺廟文化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2011.12.
  - 7) 黃雲鶴, 『清至民國時期的東北民神』, 『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7年 第3期, 2007.6.; 최준, 『중국 동북지역의 민간신앙』, 『중앙민속학』 제12호, 2007.
  - 8) 王虹波, 『民國時期東北地區的巫術救荒-以盛京時報記載爲中心的考察』, 『求索』 2010-6.; 趙英蘭、劉揚, 『清末民初東北民間祈雨信仰與社會群體心理態勢』,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第51卷 第5期, 2011.9.
  - 9) 張士尊, 『清代東北移民與社會變遷: 1644-1911』,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3.4.; 範立君, 『近代東北移民與社會變遷(1860~1931)』, 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5.; 杜臻, 『近代山東移民對東北文化的影響(1860~1911)』, 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5.

동북 이민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고, 만주국 성립 이전으로 시기를 한정할 것은 우선은 자료의 제한 때문이지만 만주국 성립으로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 조성되었으므로 별도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Ⅱ. 동북지역의 고유성과 민간신앙의 이식

淸朝를 수립한 만주족은 동북지역을 '조상의 성지'로 여겨 封禁 지역으로 선포하였다. '盛京邊牆'이라는 나무 말뚝을 박아서 만든 벽(木柵)으로 구별하고 이민족의 유입을 금지시켰다. 만주족 지배층의 대규모 관내 이주와 封禁으로 인해 동북은 사실상 無主空山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封禁이 엄격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어서, 入關 전에 明朝와의 전투에서 포로로 잡은 수십 만 명의 '漢軍', 反淸 투쟁에 가담했던 사람들, 죄수들, 실직자 등을 동북 변방에서 살게 했다. 그렇지만 동북에 본격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860년대 이른바 '移民實邊' 정책으로 封禁政策이 이완되면서부터였다. 러시아의 남방정책에 대응해 동북지역을 마냥 비워둘 수 없게 된 淸朝는 이민을 통해 황무지를 개간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다.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 개항과 철도의 부설, 제국주의의 경제침략 등으로 새로운 사회경제구조가 형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수요가 급증하여 이민이 대거 유입되었다.<sup>10)</sup>

주지하듯이 이주민의 급증은 개항, 철도, 제국주의의 침략 등과 함께 동북지역의 근대적 변화와 지역사회의 형성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이는 신앙체계에서도 마찬가지로, 淸代 咸豐年間 封禁政策의 완화 이후 급증

10) 尹輝鐸, 「'邊地'에서 '內地'로 : 中國人 移民과 滿洲(國)」, 『中國史研究』 第16輯, 2001.12, 42~51쪽.

한 내지인의 이주는 ‘기성종교’의 전파,<sup>11)</sup> 민간종교결사의 유입을<sup>12)</sup>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동북지역 민간신앙 전반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清代 중기 이민이 이루어지기 이전, 동북지역 고유의 민간신앙은 샤머니즘이 대세였다. ‘샤먼’은 본래 시베리아 퉁구스족의 종교지도자를 이르는 말인데, 巫術과 儀式에 종사하면서 신령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구체적으로 家神 제사를 주재하고, 굿판(跳神)을 벌여 신령과 소통했고, 이를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 재앙을 물리치고, 福을 기원하고, 占卜을 행하였다. 『滿洲源流考』에서도 굿(跳神)이 본래부터 오래된 습속임을 말해주고 있다. 『祀神』 조항에서 ‘만주에서 신에게 제사지내는 의식에서는 司祝이 허리에 방울(腰鈴)을 묶고, 손에는 북을 잡고 앞뒤로 움직이거나 빙빙 돌면서 쟁쟁 소리를 낸다. 무릇 노래를 불러 기원하는 가사가 있다’고 적고 있다.<sup>13)</sup> 일반적으로 굿판을 벌여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柳邊紀略』에는 “滿洲人は 병이 나면, 藥 먹기를 가볍게 여기고, 굿판을 중히 여긴다. 병이 나지 않아도 굿판을 벌이는데, 부귀한 집안은 월마다 또는 계절마다 한 번씩 한다. 年末이 다 되도록 한 번도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sup>14)</sup>고 하였다. 병이 들어 굿판을 벌이려면 대개 巫醫를 찾는데 이들은 - ‘샤먼(薩滿)’이라고 불리지만 - 신령에 제사 지내는 司祝과는 구별되었다. 월마다 혹은 계절마다 그리고 연말에 굿판을 벌이는 자가 『滿洲源流考』에서 언급한 司祝이고, 양자는 분명히 구분되었다고 한다.<sup>15)</sup> 아무튼 샤머니즘은 동북지역 민간신앙의 대세를 이루었던 오래된 습속이었다.

11) 劉揚, 『近代遼寧地域社會視野下的寺廟文化研究』, 24~37쪽.

12) 박경석, 『민국시기 동북지역의 민간종교결사와 지방당국의 대응』, 258~271쪽.

13) 남주성 역주, 『欽定滿洲源流考(下卷)』, 글모아, 2010, 384~385쪽.

14) 『柳邊紀略』(第5卷, 1931~1934年 金毓黻이 펴낸 遼海書社 출판<遼海叢書>本), 丁世良/趙放 主編, 『中國地方志民俗資料匯編(東北卷)』, 北京圖書館出版社, 1989, 3쪽.

15) 『奉天通志』(第260卷, 1934年 출판본), 丁世良/趙放 主編, 『中國地方志民俗資料匯編(東北卷)』, 20~21쪽.

샤머니즘은 만물에 영혼이 존재하고 영혼은 불멸한다고 믿는 원시신앙의 신념체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숭배하는 神靈도 동식물을 비롯한 자연신 숭배와 토탐 신앙, 조상숭배가 강세를 보였다. 동북지역의 자연환경과 관련해 채집 및 수렵이 중요한 생산방식이 되어왔고, 산에서 나는 산물이나 짐승을 얼마나 많이 획득하느냐는 결국 天神이나 山神, 조상의 보우하심에 달려있고 그들의 은사라고 여겼다. 따라서 사람들은 신령의 보살핌을 기원하게 되고 이로써 일련의 제사활동이 형성되었던 것이다.<sup>16)</sup> 이처럼 샤머니즘은 자연숭배, 조상숭배, 토탐숭배 등의 내용과 제사의식 활동을 포괄하였다.<sup>17)</sup>

清代 中期 이래 이민이 급증하고 이민자에 의해 동북사회가 새롭게 건설되면서 동북지역 민간신앙의 지형도 크게 변하였다. 이민자들은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信仰體系를 함께 가지고 왔으며 동북사회에 複製, 移植하였다. 요컨대, 동북에서는 원래 娘娘廟, 關帝廟, 城隍廟, 龍王廟 등과 같은 廟宇가 거의 없었으나, 이민 이후에는 이민의 유입과 비례해서 祠廟가 건립되었고, 그 祠廟에서 숭배했던 神靈들도 내지의 그것과 같은 것이었다.<sup>18)</sup> 이런 사실은 기존 연구에서 비교적 충분히 밝혀놓았다. 劉揚은 遼寧地域의 寺廟가 건립되는 역사적 변천 과정과 清代 이래 民國時期에 걸친 遼寧地域의 寺廟 분포 상황을 통해 寺廟의 건립이 이주자의 유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논증하였다.<sup>19)</sup> 이런 동북지역 寺廟의 건립 및 분포가 이민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張士尊이 선행연구에서 상당 부분 밝혔고<sup>20)</sup> 이 부분에서는 劉揚도 그의 연구에 상당 부분 의존했다.

16) 範立君, 『近代東北移民與社會變遷：1860～1931』, 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5, 127쪽.

17) 邵小翠, 『試論近代移民對東北文化的影響』, 延邊大學 碩士論文, 2010.5, 31～32쪽.

18) 杜臻, 『近代山東移民對東北文化的影響(1860～1911)』, 山東大學 碩士論文, 2006.5, 24～33쪽.

19) 劉揚, 『近代遼寧地域社會視野下的寺廟文化研究』, 37～45쪽.

중국 국립 북경도서관이 펴낸 『中國地方志民俗資料匯編』<sup>21)</sup>(이하 ‘民俗資料’로 칭함)은 각지의 지방지에 수록되어 있는 민속 관련 자료를 모아놓아, 각지의 민간신앙을 비교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특히, ‘東北卷’과 ‘華北卷’에 수록되어 있는 ‘信仰民俗’ 파트를 정리하면,<sup>22)</sup> 지역별 민간신앙의 대강을 비교하기에 편리하다. 이에, ‘東北卷’과 ‘華北卷’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말미의 附表로 수록하였다. 주지하듯이, 동북이민이 주로 華北地域에서 출발하였음을 고려할 때 양자의 비교는 이민의 유입에 따른 민간신앙의 이식을 살펴보기에 적절하다.

附表-1과 附表-2를 비교해 보면, 동북지역과 화북지역의 숭배 대상이 대체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遼寧省의 『海城縣志』에 따르면, 숭배 대상으로 天地, 門神, 灶神, 張仙, 觀音菩薩, 眼光娘娘, 城隍, 土地, 火神, 財神, 藥王, 龍王, 山神, 河神, 九聖, 胡仙 등이 언급되었다. 許願(誓願)과 祈雨도 널리 행해졌다고 한다.<sup>23)</sup> 또한, 吉林省의 『長春縣志』에 따르면, 關帝廟, 碧霞元君廟(娘娘廟)가 매우 성황을 이루었고, 虫王, 龍王, 馬王 등의 各祠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였다.<sup>24)</sup> 黑龍江省의 『双城縣志』에 서는 土地, 山神, 河神, 門神, 灶神, 財神, 九聖, 狐仙, 眼光娘娘, 張仙 등이 숭배 대상으로 언급되고, 誓願이나 祈雨, 覓神(跳神)이 전형적으로 소개되

20) 張士尊, 『清代東北移民與社會變遷: 1644-1911』,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3.4, 322~360쪽.

21) 丁世良/趙放 主編, 『中國地方志民俗資料匯編(華北卷 ; 東北卷)』, 北京圖書館出版社, 1989.

22) 『中國地方志民俗資料匯編』은 華北, 東北, 西北, 西南, 中南, 華東 권역으로 나누어 6권이 발행되었는데, 各卷마다 禮儀民俗, 歲時民俗, 生活民俗, 民間文藝, 民間語言, 信仰民俗, 其他로 나누어 편제하였다.(丁世良/趙放 主編, 『內容提要』, 『中國地方志民俗資料匯編(華北卷)』, 0쪽.)

23) 『海城縣志』(六卷, 1937년판), 丁世良/趙放 主編, 『中國地方志民俗資料匯編(東北卷)』, 80쪽.

24) 『長春縣志』(六卷, 1941년판), 丁世良/趙放 主編, 『中國地方志民俗資料匯編(東北卷)』, 277쪽.

었다.<sup>25)</sup> 이밖에, 『盛京時報』에 東北 各縣의 娘娘廟, 關帝廟, 藥王廟, 天帝廟(東嶽廟), 城隍廟, 天后宮 등에서 떠들썩하게 廟會가 열렸음을 전하는 기사가 수시로 게재되었고,<sup>26)</sup> 廟會의 전반적인 양상도 내지와 거의 동일하였다.<sup>27)</sup>

이민의 유입과 함께 동북지역의 廟宇들이 갈수록 증가되었던 만큼, 동북지역의 신앙이 샤머니즘 위주의 단일구조에서 벗어나 다원화되었고, 위에서 보았듯이 새로 생긴 廟宇들은 내지와 비슷하였다. 河北省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아도, 『武安縣志』에서 민간신앙의 숭배 대상으로 城隍, 龍王, 文昌, 呂祖, 土地, 送子娘娘, 財神, 瘟神, 灶神(灶君), 狐仙 등을 열거하였고,<sup>28)</sup> 또한, 『襄陵縣志』에 따르면, 城隍廟, 二郎廟, 火神廟, 娘娘廟, 東嶽廟, 關帝廟, 財神廟, 龍王廟, 藥王廟 등이 있었고,<sup>29)</sup> 『新河縣志』에는 이상의 모든 寺廟의 명칭이 망라되어 있다.<sup>30)</sup> 이밖에, 山東省의 『鄒平縣志』를 보아도, 風雲雷雨山川壇, 邑厲壇, 城隍廟, 關帝廟, 文昌閣, 奎星閣, 八蜡廟, 龍王廟, 土地祠, 獄神廟, 馬神廟, 伏生祠 등이 언급되어 있다.<sup>31)</sup>

25) 『双城縣志』(十五卷, 1926년판), 丁世良/趙放 主編, 『中國地方志民俗資料匯編(東北卷)』, 416쪽.

26) 『盛京時報』의 1929년 5~6월분만 살펴보아도, 「演戲酬神」(1929.5.5.) ; 「廟會盛志」(1929.5.11.) ; 「演戲酬神」(1929.5.22.) ; 「演戲預聞」(1929.5.22.) ; 「廟會熱鬧」(1929.6.8.) ; 「沙尖鎮 - 淫戲宜禁」(1929.6.8.) 등 이외에 매우 많다. 물론 다른 시기에도 마찬가지이다. 盛京時報에는 張作霖이 주도한 祈雨祭(「上將軍躬親求雨」, 『盛京時報』1926.5.22.)를 비롯해 祈雨祭에 관한 기사도 매우 많은데, 그 양상을 보면 대개 내지와 유사하였다.

27) 일반적인 廟會에 대해서는 劉峰, 「清代民間的酬神演戲和迎神賽會」, 『湖南城市學院學報』第32卷 第6期, 2011.11. 참조.

28) 『武安縣志』(十八卷, 1940년판), 丁世良/趙放 主編, 『中國地方志民俗資料匯編(華北卷)』, 471쪽.

29) 『襄陵縣志』(二十四卷, 1923년판), 丁世良/趙放 主編, 『中國地方志民俗資料匯編(華北卷)』, 681쪽.

30) 『新河縣志』(二十四卷, 1929년판), 丁世良/趙放 主編, 『中國地方志民俗資料匯編(華北卷)』, 514쪽.

31) 『民國鄒平縣志 卷五 - 壇廟』, 『中國地方志集成·山西府縣志輯』, 鳳凰出版社, 2005, 91

뿐만 아니라, 내지의 신앙이 유입되면서 동북지역에서는 샤머니즘에 의지하는 현지인들이 갈수록 적어졌고, 특히 이민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현지인들은 전통적 샤머니즘과 더욱 더 멀어졌다고 한다.<sup>32)</sup> 『奉天通志』에 보이는, “근년에 날로 극심하게 세상이 변하여, 이제 만주의 舊典은 대부분 다시 찾아볼 수가 없다”<sup>33)</sup>는 서술에서 변화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吉林新志』에는, “旗인이 제사 지내는 神과 漢人の 그것이 같은데, 특별히 중시하는 것은 觀世音菩薩, 伏魔大帝(關羽) 및 土地神이다. 돼지를 잡고 술을 올리는 것이 반드시 매우 경건하다”<sup>34)</sup>고 적고 있다. 이렇게 보면, 清代 咸豐年間 이래의 이민의 증가와 함께 내지의 신앙체계가 동북에 이식되면서, 기본적으로 일종의 文化的 複製와 移植을 통해 내지의 신앙체계가 동북지역에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Ⅲ. 동북지역 민간신앙의 ‘복합성’

대규모 이민 이후 동북지역에 새로운 민간신앙이 형성되는 과정에 複製와 移植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동북지역의 민간신앙을 구성했던 많은 요소들은 이민과 함께 유입된 것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지만, 동시에 동북지역 토착의 신앙체계와 융합되고 동북지역의 특수한 사회적, 지리적 조

---

~94쪽.

32) 邵小翠, 『試論近代移民對東北文化的影響』, 32쪽.

33) 『奉天通志』(二百六十卷, 1934년판), 丁世良/趙放 主編, 『中國地方志民俗資料匯編(東北卷)』, 19쪽.

34) 『吉林新志』(二編, 1934년판), 丁世良/趙放 主編, 『中國地方志民俗資料匯編(東北卷)』, 267쪽.

권이 반영되면서 나름의 다원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근대 이후 동북지역의 민간신앙은 다층적 '복합화'를 통해 '복합성'을 가지게 되었고, '복합성'을 동북지역 민간신앙의 특성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다. 아래에서는 다원적 색채 내지 '복합성'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 1. 사머니즘의 상대적 활성화

遼寧省檔案館에 소장되어 있는 방대한 檔案資料를 수록하고 있는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이하 '檔案資料'로 칭함)에 따르면,<sup>35)</sup> 巫醫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명 사고가 자주 문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1919년 2월 錦西縣에서는 張文德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가 폐결핵에 걸려 차도가 없자 巫醫에게 治病을 의뢰하였고, 巫醫가 병을 고치며 굿판을 벌이고 환자의 배꼽 아래를 칼로 절단해 출혈 과다로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있었다.<sup>36)</sup> 1919년 7월에는, 東豐縣의 주민 劉雲貴가 굿판에서 치료를 받다가, 칼로 배를 절단 당해 죽음에 이르는 사건도 있었다.<sup>37)</sup> 錦西縣과 東豐縣의 사건으로 奉天省政府에서 경계령을 내렸으나 머지않아 盤山縣에서 부녀자 郭谷씨가 巫醫의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sup>38)</sup> 海城縣 주민 竈長生의 아들 竈忠文이 매독에 걸렸는데, 1924년 3월

---

35)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全27冊),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5. 이 자료집은 총 27冊에 걸쳐 약 13,5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데, 民俗 및 文物古跡에 관한 檔案資料 외에 官方祭祀(제4~5책), 演劇酬神(제5책), 邪教와 迷信(제8책) 및 滿洲國時期 향촌조사 보고서(제9~12책) 등 민간신앙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36) 『開原縣巫醫治病害人致死(1919.02.26)』,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55~57쪽.

37) 『黑山縣嚴禁邪術治病(1919.07.25)』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58~60쪽.

38) 『奉天全省警務處查禁巫醫邪術治病殘害人命(1921.06.22)』,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63~64쪽

巫醫 王恩吉이 성기를 작두로 잘라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sup>39)</sup> 7월에는 鳳城縣에서도 王國福이라는 巫醫가 작두와 占術(邪占)로 治病한 일이 적발되었다.<sup>40)</sup> 1927년 6월에는 開原縣 戴家莊子 주민 梁玉泰가 ‘동생 梁玉衡이 黃天教 東派 수령 梁自修라는 巫醫의 감언이설에 홀려 醫業을 배척하고 온갖 仙法, 仙丹, 符籙에 의지해 많은 돈을 탕진하고 있다’<sup>41)</sup>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런 구체적인 사건이 꾸준히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은 ‘各地 廟宇에서 일상적으로 仙丹, 藥籤(일종의 제비뽑기), 神方, 乩方(점술 처방)으로 治病하는 일이 많고, 仙丹을 仙佛이 선사한 좋은 처방으로 여기고, 이로 인해 매년 사망하는 자가 셀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sup>42)</sup> 또한, ‘各縣·市·鎮·村·屯에 일종의 巫醫가 있어 乩官(跳大神)을 벌이고 治病을 구실로 재물을 편취하고 있는데, 환자가 醫藥으로 생명을 지킬 기회가 없어서 마땅히 엄히 단속해야’<sup>43)</sup> 한다고 누차 강조하였다. 『盛京時報』에서도 이런 사정을 전하고 있는데, 『奉天省長公署訓令』에서 누차 지적하기를, 各處에 巫女가 있어 廟宇를 假借하여 藥品을 배합해 神方이라고 하고, 심지어 (독극물인) 砒素까지 복용할 수 있다고 했다고<sup>44)</sup> 한다.

그러나 당국의 엄격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기층사회에서는 巫醫의 ‘의

39) 『海城縣巫醫治病害人致死(1924.03.17),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06~109쪽.

40) 『奉天全省警務處查禁巫醫害人(1924.07.22)』,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36~139쪽.

41) 『開原黃天教邪術騙財戕害生命(1927.06.10)』,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50~152쪽.

42) 『衛生部嚴禁各地廟宇中施給仙丹神方(1921.04.13)』,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61~62쪽.

43) 『遼寧省民政廳嚴令查禁巫醫跳大神誣騙金錢(1929.04.24)』,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60~162쪽.

44) 『禁止神方』, 『盛京時報』 1913.11.6.

료행위'를 비롯한 샤머니즘(巫俗)에 대한 거부감이 기본적으로 없었고, 인명 피해가 있을 경우에만 형사적으로 대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奉天省政府은 기층에서 '巫覡(무당)이 사람을 미혹해도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엄금하지 않았음'<sup>45)</sup>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다. 또한, 1924년 3월 『昌圖縣公署布告 第4號』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거듭 포고하니 엄금하라.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북을 치는 굿판을 살펴 보니 풍속을 크게 해쳐 나타날 때마다 거듭 엄금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금방 소홀해진다.** 近日 향촌을 방문해보니 또 떠들썩한 액막이 굿판을 벌인 무리가 **멋대로 행동하고 전혀 거리낌이 없다.** 각 區長 및 警甲, 村長은 맡은 바 소임이 무엇인가. 저들이 제멋대로 망동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 거듭 표명하는 포고는 邑 전체의 紳民이 일체로 잘 숙지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향촌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떠들썩한 액막이굿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각 區長 및 警甲, 村長이 책임을 지고 查禁을 嚴行하고,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 .... **의도적으로 관망하거나 형식적으로 대처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발각되거나 고발되면 해당 관할의 區長, 警甲, 村長을 瀆職律에 따라 징계 처분하라. .... 46)

省政府나 縣政府 차원에서 엄단하라는 지시가 누차 거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실행해야 할 기층의 각 區長, 警甲, 村長은 '의도적으로 관망하거나 형식적으로 대처했음'을 알 수 있다. 鳳城縣 警察所가 縣公署에 보낸 공문에서 보이는 巫女에 대한 '동정어린' 시선에서도 기층사회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3~4년래에 신 내림을 받은 한 巫女가 움직이지

45) 『盤山縣巫醫殘害病人致死(1921.07.31)』,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65~67쪽.

46) 『昌圖縣嚴禁跳大神布告(1924.03.22)』,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10~111쪽.

못하는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꾸리기 위해 神에 依託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이것으로 입에 풀칠을 하다가 붙잡혔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묻고 있다.<sup>47)</sup>

이처럼 巫醫, 巫俗과 같은 샤머니즘이 이주민으로 구성된 東北社會各地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내지에서는, '巫醫'라는 것이 '中醫'와 서로 배척되지 않았고 오히려 상호 의존하고 포용하는 관계였으나, 이른바 무속과 의술을 구분하지 않고 직결시키는 것('巫醫不分')은 예전부터 심히 경계되어 왔다고 한다.<sup>48)</sup> 말하자면, '巫醫'라고 해도 위에서 열거한 사례처럼 굿판을 벌여 치료를 하거나 작두로 사람을 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굵이 '巫醫'임을 숨기지 않았고 焚香하고 신령에 빌어 처방을 내렸지만, 이미 의술에 통달해 있었고 이런 의료행위 방식은 일정한 신앙행위를 통해 (신뢰감을 높여) 이득을 얻고자 할 따름이었다고 한다.<sup>49)</sup> 따라서 전통시기 中醫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內地에서는 의료행위에 굿판(跳大神)을 동원하는 일이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근대 이후 지배세력은 '迷信'이라는 개념과 표상으로 '샤머니즘'과 같은 민간의 일부 신앙 양태를 비판하였으나, 이는 사실 전통시기부터 이어져 오던 것이었다. 전통시기 엘리트 세력도 經典에서 인정하지 않은 신앙을 '淫祀'라는 개념으로 비판하였다. 풍속과 인심을 해친다거나 낭비를 초래해 백성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한다는 논리로 '淫祀'를 비판하였는데 이런 논리구조는 근대 이후 '미신타파'의 논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물론 중국의

47) 『鳳城縣查獲男女巫醫及器物(1924.04.27)』,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17~120쪽.

48) 朱敏爲/王繁/趙晶晶/李柳, 『明朝對巫醫的批判研究』, 『湖北中醫藥大學學報』 第15卷 第6期, 2013.12, 45쪽.

49) 王曉翠, 『民國時期中西醫論戰研究』, 曲阜師範大學 碩士論文, 2010.4, 7~8쪽.

엘리트 전통이 모든 민중세계의 神靈을 배척한 것은 아니지만, 관건은 그 신앙이 正統의 윤리 교화에 부합하느냐, 朝廷의 향촌 지역에 대한 통치 질서에 부합하느냐에 있었다. 말하자면, '淫祀'에서 '迷信'으로 개념과 표상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내지에서는 전통시기부터 엘리트 세력에 의해 샤머니즘과 같은 신비주의적 요소가 배척되고 있었다.<sup>50)</sup> 따라서 근대 이후 동북지역에서 샤머니즘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는 지역적 특성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民俗資料'를 통해 東北과 華北의 민간신앙을 비교해 보아도, 전통적으로 동북지역 신앙체계의 주축이었던 샤머니즘이 근대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활발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附表-1에서 보듯이, 동북지역에서는 샤머니즘을 표상하는 '跳神'이나 '巫神' 등을 하나의 항목으로 언급하는 縣志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信仰民俗'을 포함하고 있는 34곳의 縣志 중에 桓仁縣, 莊河縣, 安東縣, 鳳城縣, 義縣, 興城縣, 朝陽縣(이상 遼寧省), 長春縣, 盤石縣, 海龍縣, 臨江縣, 輯安縣, 梨樹縣, 西安縣, 東豐縣(이상 吉林省), 龍城縣, 呼蘭縣, 双城縣, 賓縣, 綏化縣, 望奎縣, 安達縣, 東寧縣, 寶清縣, 瑯琿縣(이상 黑龍江省) 등 25縣이 해당된다. 특히, 黑龍江省의 경우에는 11곳 중에 10곳이 해당되었다. 반면에, 화북지역의 경우 총 32곳 중에 巫俗을 언급한 경우가 7곳에 불과하다. 물론 縣志의 해당 내용 전체를 수록하지 않아 정확한 실태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확연한 차이에서 드러나는 경향성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동북지역에 巫醫와 굿관(跳大神)이 문제가 된 사건이 유난히 많았고, 地方志의 언급에서도 동북지역에 샤머니즘의 경향이 상대적으로 농후했다면, 샤머니즘이 비교적 활발하게 작용했던 점을 동북지역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대규모 이민 이전에 있었던

50) 沈洁, 『反對迷信與民間信仰的現代形態——兼讀杜贊奇“從民族國家拯救歷史”』, 『社會科學』 2008年 第9期, 168~169쪽.

동북지역 고유의 특성, 즉 샤머니즘 위주의 민간신앙체계라는 특징이 이주민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보면, 이민과 함께 유입된 內地의 민간신앙체계가 동북지역에 단순히 이식, 복제되었던 것이 아니라, 동북지역에 내재해 있던 요소가 이주민의 신앙체계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민간신앙에 있어 동북의 고유한 특성이 이주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이주민에 의해 내지의 신앙요소가 이식되는 흐름과 결합되면, 다소간의 비대칭성이 있더라도 외래와 토착이 공존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이런 현상을 『綏化縣志』의 기록에서 한 장의 사진처럼 볼 수 있어 흥미롭다.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액막이 기원을 드리다(祈禳) - 漢族과 滿洲族이 신령에게 기도하는 것은 대체로 같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龍王廟와 關帝廟에 모여 분향하고 기원하며 香亭(역주-제사나 장례를 지낼 때 향로 따위를 놓아두는 화려한 정자)을 들어 올린다. 위로는 신령의 위폐를 모셔두고 교외 지역을 巡行한다. 무리는 모두 신발을 벗고, 버드나무 가지를 모자에 꽂아, 비가 내리는 형상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求雨’이다.

푸닥거리를 해서 병을 쫓는 것(禳病) - 이것도 漢族과 滿洲族이 크게 다르지 않다. 무당을 불러 굿판을 벌인다.<sup>51)</sup>

전자는 祈雨에 관한 내용이다. 祈雨祭는 농경사회의 전형적인 儀式 중의 하나로 거의 중국 전역에서 행해졌던 대표적인 민간의 신앙 활동이다. 龍王廟와 關帝廟를 중심으로 祈雨祭를 진행하고 ‘신발을 벗고, 버드나무 가지를 모자에 꽂고 행렬을 지어 비가 내리는 형상을 만들어 내는’ 내지의

51) 『綏化縣志』(十二卷, 1920년판), 丁世良/趙放 主編, 『中國地方志民俗資料匯編(東北卷)』, 444쪽.

방식이 오랜 세월에 걸쳐 黑龍江省 궁벽한 곳까지 유입되어 정착된 것이다. 말하자면, 이는 내지 신앙의 이식을 표상한다. 후자는 샤머니즘이 체현된 것인데, “漢族과 滿洲族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무당을 불러 굿판을 벌이고 이를 통해 병을 이겨내려는 방식은 동북의 고유성이 이주민(漢族)의 신앙생활에 녹아들어간 것이다.

## 2. 지역적 편차와 지역성의 반영

상기한 ‘檔案資料’에는 第9~12冊에 걸쳐 총 76편의 ‘社會生活 調查 報告書’가 수록되어 있다.<sup>52)</sup> 모두가 滿洲國時期에 작성된 보고서로서, 보고서마다 하나의 縣을 대상으로 주제별로 일정한 포맷 하에 작성되었다. 토지관계, 소작제, 노동 및 고용관계, 매매관계, 借貸關係, 금융관계, 자치와 사회생활, 풍속, 습관, 촌락의 형태와 분포, 연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풍속 및 습관’ 부분에서 간략하나마 민간신앙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附表-3은 그 내용의 대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附表-3에서 보듯이, 대체로 東三省을 남북으로 나눌 때 남부지역 향촌의 신앙생활과 북부지역이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東三省 중에 내지와 가깝고 경제와 문화가 비교적 번영했던 지역, 즉 遼寧省 지역(만주국시기의 지역구분으로는 熱河省, 奉天省, 錦州省, 安東省 등)과 吉林省 지역에는 주로 娘娘廟, 土地廟, 七聖祠, 藥王廟, 關公廟, 孔子廟, 財神廟 등이 있어 山神, 財神, 虫王, 馬王, 關聖帝君, 龍王, 火德眞君, 牛王, 苗王, 五道君 등의 神位가 배치되어 있고, 정월대보름, 단오절, 중추절, 연말연시(年關) 등에 때때로 廟會 및 演戲를 열었다. 또한 필요에 따라 祈雨祭나 虫節祭를 지내기도 했다.

반면에 黑龍江省 지역(만주국시기에는 興安南省, 興安北省, 興安西省,

52)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9~12冊』,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5. 참조.

龍江省)은 남부지역과 일정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전히 고유의 샤머니즘과 라마교가 민간의 신앙생활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지배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전술했듯이, 상기한 ‘民俗資料’에서는 黑龍江省에 해당되는 11縣의 地方志 중에서 10곳이 샤머니즘 요소를 중심으로 민간신앙의 양태를 서술하였다. 이는 대개 ‘소수민족’의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반영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요컨대, 黑龍江省에 해당되는 縣志에서는 애초부터 滿洲人, 漢軍旗人(清朝 入關 전에 明朝와의 전투에서 잡은 수십 만 명의 漢人 포로로 구성한 집단), 漢族, 回族 등으로 나누어 민간신앙을 설명하고 있다. 물론 각 민족의 민간신앙 양태가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滿洲人은 고유의 샤머니즘 전통을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하고 있고, 漢軍旗人은 이주 漢人보다 동북지역에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滿洲 고유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여전히 漢族의 전통을 지니고 있고, 漢族은 내지의 성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식이다.

이처럼 동북지역 토속의 신앙체계에 이민을 통해 들어온 새로운 요소가 중첩되고 누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時差나 영향의 強度에 따라, 동북지역 내에서 일정한 지역적 편차가 발생한 것인데, 이러한 지역적 편차 또한 동북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편차는 동북 고유의 사회적 상황이나 지리적 환경과 같은 지역성이 민간신앙에 반영되면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廟會와 관련된 다음 두 가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廟會는 일정한 목적과 체계를 가진 廟宇의 정기 및 비정기 행사로서 민간신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附表-1과 附表-2에서 보듯이, 各 縣志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신앙 활동도 廟會였다. 城隍廟, 火神廟, 娘娘廟, 東嶽廟(天齊廟), 關帝廟, 財神廟, 龍王廟, 藥王廟 등에서 개최되는 정기적인 廟會 이외에도, 附表에서 언급된 祈雨나 許願, 還願, 愿心, 報祀, 報賽, 酬神 등은 모두 실제로는 廟會를 의미한다. 특히 許願, 還願, 愿心, 報祀, 報賽, 酬神 등은 ‘이 소원을 들어주면 어떻게 보답하겠다’는 식으로 신령에게 誓願했

던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신령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에 보답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sup>53)</sup>는 사회적 통념이 작용했다. 대개는 3일이나 5일간의 演戲를 개최해 신령의 보우하심에 보답하고 또 신령의 보살핌을 기원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관용적으로 '演戲酬神'으로 표현되곤 하였다.

상기한 '檔案資料' 제5책에는 모두 63건에 이르는 '演戲酬神' 관련 공문이 수록되어 있다.<sup>54)</sup> 지방당국에서는 재물을 낭비하고 치안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演戲'를 금지하였으므로, 區長이나 村長, 商會 會長 등이 '演戲'를 개최해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를 들어 말단 경찰당국에 신고하면, 이를 상급기관에 上申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演戲酬神'에서 기원하는 바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기원 내용	건수	비율(%)
자연재해(祈雨 포함)	33	52.38
사회 안녕	14	22.22
감사/기념	11	17.46
전염병	3	4.76
전쟁승리 기원	1	1.59
경제발전	1	1.59
	63	100

가장 많은 경우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祈雨'가 28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오랜 가뭄으로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鄉民들이 공동으로 기도했는데 마침내 큰 비가 내려 모두 희색이

53) 『海城縣管飯寺村爲祈禱得雨演戲酬神(1916.10.16)』,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5冊』, 384쪽. 이런 인식은 다른 문서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54)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5冊』, 375~500쪽.

만연해졌고 誓願한 대로 演戲를 베푼다는 내용이었다.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는 가뭄 이외에도, 蟲災, 水災, 우박 피해와 관련된 것이 있었고, 단순히 날씨를 순조롭게(風調雨順) 해달라는 기원을 담기도 하였다. ‘감사/기념’ 항목도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廟宇의 重修 완공(開光)을 기념하는 演戲가 많았고, 창립을 기념하는 演戲도 있었다.

이밖에, ‘사회 안녕’, 전염병, 전쟁승리 기원, 경제발전 등은 일정 정도 동북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안녕’과 관련해서는, 戰禍, 兵災, 匪賊의 우환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바람에서 演戲를 개최했다. 특히 1925년 5월 奉直戰爭의 와중에서 열린 演戲는 直隸軍의 蹂躪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원이 이루어져 그 보답의 뜻으로 열렸다. 또한 1921년 10월 開原縣에서 열린 演戲는 큰 화재를 당하여 시는 화재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원이었다.<sup>55)</sup>

전염병과 관련된 演戲는 유난히 전염병이 극성을 부렸던 동북지역의 지역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전염병이 유행하여 참혹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신령에 의지해 위안을 얻으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1923년 8월 1차 직봉전쟁에 출전한 營長 趙獻之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演戲를 베풀기도 했고, 특이하게 1931년 6월 復縣에서는 縣公署가 이전함에 따라 시장 상황이 황폐해지자 지역경제의 회복과 진흥을 기원하는 演戲를 열기도 했다.

또한, 附表-3을 보면, 屯內에서는 廟會가 열리지 않고 주민이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의 廟宇에까지 가서 廟會에 참여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55) 이와 유사한 사례로, 같은 해 5월에는 本溪縣 邑內의 商會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인명 피해가 없어 火神의 은공을 기리는 演戲를 개최하기도 했다. (『本溪-演戲酬神』, 『盛京時報』 1921.5.12.)

西豊縣：本屯에는 土廟가 있지만, 별도로祭는 없다. 縣城이나 屯外의 廟에서 축제가 있을 때는 나가서 참배한다.

梨樹縣：本屯에서는 廟가 마련하는 祝祭는 하지 않는다. 廟會는 없다.

綏中縣：屯內에 祠가 하나 있는데, 祭는 행하지 않는다. 娘娘廟會는 4월 18일에 행해지는데, 이것은 興城縣과 綏中縣 경계 지역, 즉 15 滿里 떨어진 곳에 廟가 있다. 이 廟會에 本屯의 절반 이상이 참여한다. 이밖에 4월 28일에 열리는 第2區 萬寶山의 藥王廟會에도 屯民이 참석한다.

이처럼 屯內에서 廟會를 행하지 않고 농민이 수 킬로미터 떨어진 대형 廟會에 참여하는 경향에 대해, 深尾葉子와 安富步는 廟會가 村內에서 완결적으로 이루어지는 華北과 구별되는 동북의 특성으로 지적하였다.<sup>56)</sup>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동북지역은 워낙에 縣城의 경제적 응집력이 강하여 향촌의 중상층 농민을 縣 규모의 대형 廟會로 흡수하였기 때문이라고 풀이하였다. 屯內의 廟會를 주도해야 할 중상층 농민이 대형 廟會로 빠진 상태에서 남은 小農의 힘만으로는 廟會를 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경제적 응집력이 대형 廟會로의 흡수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지만 방대한 분량의 연구서 전체가 縣城의 응집력을 다루고 있어 일정한 근거는 가지고 있는 듯하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상대적으로 생산력이 낮고 인구가 희박한 동북 향촌의 屯이 자체적으로 廟會를 개최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나 장거리 이동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목시대로서의 지역성도 함께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는 동북의 지역성이 민간신앙의 특성으로 반영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56) 深尾葉子/安富步, 『廟に集まる神と人』, 『滿洲の成立』, 名古屋大學出版會, 2009.11, 263쪽.

### 3. ‘多神混雜性’의 심화

이민과 함께 민간신앙이 다양하게 유입되었고 그래서 생겨난 동북지역 민간신앙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적인 면모는 ‘여러 다양한 神位가 하나의 祠廟에 몰려 배치되는 현상’이 농후했다는 점이다. 하나의 祠廟에 여러 신위가 병렬되어 있거나 한 사람이 여러 신령을 숭배하는 일 자체는 內地에서도 이상할 것이 없다. 주지하듯이, ‘多神混雜性’은 중국 민간신앙의 특성 중에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sup>57)</sup> 다만, 동북지역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상대적으로 훨씬 심했다는 것이다.<sup>58)</sup>

이는 ‘檔案資料’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숭배대상이나 목적에 상관없이 여러 종류의 ‘演戲酬神’이나 廟會가 土地廟나 娘娘廟와 같은 몇 곳의 祠廟에서 거행되었다.<sup>59)</sup> 또한, 奉天省 西豊縣에 대한 ‘사회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屯에서는 하나의 土廟가 있어 대개의 축제가 여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sup>60)</sup> 하나의 廟에서 여러 종류의 廟會가 열린 것이다. 吉林省 扶餘縣과 黑龍江省 洮南縣의 本屯에는 土地廟 1개가 있는데, 土地, 山神, 苗王, 牛王, 龍王, 馬王, 虫王, 財神, 五道 등 9개의 神位를 세워놓고 제사를 지냈고, 벽에는 龍王 그림을 중심으로 좌우에 各神의 형상을 묘사한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sup>61)</sup> 또한, 庄河縣 農村의 ‘祭神은 馬王, 牛王, 虫王,

---

57) 沈洁, 『反迷信与社區信仰空間的現代歷程——以1934年蘇州的求雨儀式爲例』, 46쪽.

58) 『中國東北史』에서도 ‘多教一廟와 一人多教’를 동북지역 종교 및 신앙 발전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지적한 바 있다.(佟冬 主編, 『中國東北史(修訂版) 第4卷』, 吉林文史出版社, 2006.1, 1921쪽.)

59)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5冊』,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5.

60) 『奉天省西豊縣農村自治及社會生活(1935年)』,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10冊』, 18쪽.

61) 『吉林省扶餘縣四家子屯風俗習慣、生活水平(1938年)』,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11冊』, 202쪽.; 『龍江省洮南縣農村自治及社會生活(1935年)』,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12冊』, 17쪽.

龍王, 犬王 및 天帝, 土帝, 水神의 8체<sup>62)</sup>에 이르렀다.

또한, 여러 신령을 숭배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三聖祠, 七聖祠, 九聖祠 등과 같이 여러 神의 숭배를 보이는 명칭의 廟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단일 神의 명칭을 가진 廟에서도 여러 神이 제사되었다. 예컨대, 單家堡子라고 하는 屯의 大廟는 關帝廟였지만, 여기에서는 財神, 禧神, 火神, 關帝, 龍王, 虫王, 苗王이 병렬되어 제사 지내졌다. 大廟에서 뿐만 아니라, 규모가 극히 작은 群小의 廟에서도 여러 神仙이 수많이 숭배되어 있다. 다양한 원망에 부응하기 위해 신령을 망라할 필요가 이런 숭배의 원인이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화북 농촌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것으로, 화북과 동북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게다가 종교적, 경제적, 혹은 촌락의 발생사적인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sup>63)</sup> 볼 수 있다.

이처럼 동북지역에서 '多教一廟'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이민과 함께 새로 유입된 신령이 기존의 신령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붙여져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주 인구에 비해 신봉하는 신령이 너무 많아졌고 전당 祠廟를 갖는 것이 불가능해져 '아파트 방식의 廟宇'<sup>64)</sup>가 나타난 것이다. 또한 이는 祠廟들이 여러 지역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적응한 측면이 있고, 여기에 동북지역 고유의 특성이 중첩되어 '혼잡성'이 가중되었다. 이는 신앙이 각기 다른 정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채택된 결과이기도 하다. 지방의 재원이 유한한 조건에서, 하나의 廟를 지어 여러 종류의 신앙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었고, 재원을 아껴서 祠廟의 생존 능력을 증강시킬 수 있었다. 信徒의 측면에서 보면, 대다수 신앙생활의 목적이 祈福이었으므로, 그들이 추구하는 금전적 행복이나 재해나 질병을

62) 『安徽省庄河縣農村自治及社會生活(1935年)』,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11冊』, 112쪽.

63) 深尾葉子/安富步, 『廟に集まる神と人』, 『滿洲の成立』, 259쪽.

64) 黃雲鶴, 『清至民國時期的東北民神』, 96쪽.

물리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었다.<sup>65)</sup>

이런 실용주의적 信仰觀과 함께, 이민으로 인해 동북사회에 축적된 신앙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하나의 祠廟에 여러 신령이 섞여 들어가게 했고, 이로써 동북지역에 민간신앙의 다원화 내지 복합성이 초래되었다고 생각한다.

#### 4. 자연숭배 경향의 강세

동북지역 민간신앙의 또 다른 특징으로 자연숭배 경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음을 지적할 수 있다. 요컨대, 동북지역에서는 동물을 신격화한 신령의 세력이 內地에 비해 두드러지게 우세했다. 일례로 음력 12월에 농업과 관련된 8종의 신령에게 제사지내는 ‘八蜡廟’라는 일종의 습제가 내지에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었다. 그 8종의 신령은 先齋(神農), 司齋(后稷), 農(農夫), 郵表畷, 猫虎, 坊(堤), 水庸(城隍), 昆虫이다. 그런데 이것이 동북에 들어온 후에는 점차 虫王(昆虫)에게 작물의 보호를 기원하는 虫王廟로 단순화되었다고<sup>66)</sup> 한다.

이런 농후한 자연숭배 경향은 동북지역의 자연 지리적 특성과 어우러져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난다. 동북지역 북부에는 동굴이 많고, 산이 깊고 삼림이 우거져 野獸가 출몰함으로써 때때로 사람들의 근심이 되었고, 수렵, 채집, 벌목 등을 위해 산림에 자주 출입하였기 때문에 山神을 崇祀하여 보호를 기원하는 山神廟가 매우 성행하였다. 이밖에 목조 가옥이 많아 화재의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火神廟가 많았다. 말을 키우는 일이 매우 중요해, 매년 봄에 ‘馬祖’에게 제사를 지냈고, 生畜이 번성하고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65) 佟冬 主編, 『中國東北史(修訂版) 第4卷』, 1921~1923쪽.

66) 佟冬 主編, 『中國東北史(修訂版) 第4卷』, 1914쪽.

록 馬王廟를 짓고 馬王에 제사를 지냈다. 또한 여우, 족제비, 고슴도치, 뱀, 쥐를 신격화해 胡仙(胡三太爺), 黃仙(黃三太爺), 白仙, 柳門, 灰門으로 존송하였는데, 이를 통칭하여 '五大門' 또는 '五大家'라 하였다.<sup>67)</sup>

특히 여우와 족제비를 신격화한 胡仙과 黃仙은 동북에서 특별히 인기 있는 신령이었다. 附表-1에서도 5차례에 걸쳐 언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지역에서는 妓女들이 行業神으로 섬기기도 했다고<sup>68)</sup> 한다. 娼妓는 최초로 官娼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春秋時代 齊나라 宰相이었던 管仲을 行業神으로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동북에서는 이와 함께 胡仙까지 行業神으로 제사 지냈던 것이다. 여기에는 샤머니즘의 영향도 있었다. 胡仙과 黃仙은 무당이 신 내림을 받는 신령 중에 하나이기도 했다.<sup>69)</sup> 이민 이전 동북지역에서는 샤머니즘 위주로 신앙체계가 구성되었고, 샤머니즘은 자연숭배, 토탑숭배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맥락이 상통한다.

하지만 상술한 祠廟를 세워 동물 신령을 숭배하는 방식이 동북 고유의 것은 아니었고, 이민과 함께 출현한 신앙체계의 일부로서 그 연원은 대개 內地에 있다. 유입과 동시에 현지화 과정을 거쳐 일정한 동북지역의 특징이 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複製나 移植이 아닌 다원적 색채 내지 복합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胡仙이나 黃神은 동북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中原은 儒家思想의 영향으로 그 구속력이 약한데, 동북은 수풀이 우거진 지역이라 구속력이 강해 胡仙과 黃仙에 대한 숭배가 보편화된 것이다.<sup>70)</sup> 화북지방의 경우, 清末民國에 이르면 동물신앙이 점차 쇠락하여 숭배 儀式이 한층 더 간단해지고 祭物도 감소하였고, 자연현상에 대한

67) 佟冬 主編, 『中國東北史(修訂版) 第4卷』, 1913~1916쪽; 黃雲鶴, 『清至民國時期的東北民神』, 97쪽.

68) 劉揚, 『近代遼寧地域社會視野下的寺廟文化研究』, 72쪽.

69) 瀧澤俊亮, 『滿洲の街村信仰』, 滿洲事情案內所, 1940, 217쪽.

70) 黃雲鶴, 『清至民國時期的東北民神』, 97쪽.

승배는 위낙에 많지 않았다고 한다.<sup>71)</sup> 內地와 東北이 상대적으로 달랐음을 알 수 있다.

## VI. 맺음말

이상에서 근대 이후 동북지역의 민간신앙이 가진 지역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淸末 이민의 증가가 동북지역 민간신앙 전개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기성종교’나 민간종교결사들과 마찬가지로 민간신앙도 대개는 이민과 함께 내지에서 유입된 것이었고, 승배 대상이나 祠廟, 廟會 등의 영역에서 내지의 민간신앙이 移植되고 複製되는 과정을 통해 동북지역의 새로운 민간신앙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근대시기 동북지역의 민간신앙이 단순히 내지에서의 移植과 複製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내지 민간신앙의 유입과 동북 고유의 신앙체계 및 자연 지리적 조건이 만나 상호 작용하면서 동북지역 나름의 지역성이 나타났다. 첫째, 내지의 민간신앙이 유입되어 확산되는 과정에서 동북 고유의 샤머니즘이 내지에 비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다. 둘째, 내지의 민간신앙이 동북지역에 중첩되고 누적되면서 영향 정도에 따라 지역적 편차가 뚜렷이 나타났고, 동북 고유의 지역 사정이 반영되었다. 셋째, 내지의 신령이 순차적으로 기존의 신령을 대체하면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겹겹이 쌓이면서 유입되었고, 이민으로 인해 동북사회에 축적된 신앙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됨에 따라, ‘여러 神位가 하나의 祠廟에 배치되는 현상’이 상대적으로 농후하게 나타났다. 넷째, 산림지대가 발달한 동북지역의 자연 지리적 요인이 반영되면서 동물신 등 자연승배를 중

71) 江浦, 『近代華北城鄉民間信仰述評』, 21~22쪽.

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국, 이주와 함께 이주민이 동북에 가져온 신앙이 있었고, 또한 수용하는 측으로서의 동북에도 본래의 신앙체계가 있었고, 자연 지리적 환경의 특성도 있고, 이주민이 동북에 와서 처하게 된 사회적 환경도 있었다. 이런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복합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그 결과 나름의 독특한 '복합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내지의 신앙이 동북에 영향을 끼치고 동북의 신앙이 내지에서 온 이주민에 영향을 끼치는,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진 상호 작용이 공존하였고, 이러한 공존은 외래와 토착이 융합된 하나의 양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전통의 지속이나 단절이라는 단선적 발전 과정이 아니라, 현실적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누적되고 해석되는'<sup>72)</sup> 역사 과정이었다.

동북지역이 '離散, 정착, 流離, 탈출, 방황으로 점철된, 무수한 정체성이 형성되고 경험되어왔던 역사적, 현재적 장소'<sup>73)</sup>이었음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관행'으로서의 민간신앙이 근대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다기한 모순이 집결해 요동쳤던 동북사회의 근대적 변화와 결부시켜 고찰해 보았다. 동북지역에서는 淸末 이래 대규모 이주와 함께 내지의 전통이 공간적으로 이전되어 근대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즉, 동북에는 전통에서 근대로의 지속과 단절이라는 시간적 변화가 공간적으로 전개되는 특이성이 있었다. 이에 본고는 이런 동북지역의 지역적 특성에서 출발

72) 祈雨祭를 통해 본 지역사회 전통의 연속과 근대적 재구성에 대해서는 沈浩, 『反迷信與社區信仰空間的現代歷程——以1934年蘇州的求雨儀式爲例』, 『史林』 2007年 第2期. 참조. 이 논문은 농민, 상인, 지방정부, 儀式 전문가 등의 주체가 祈雨祭에 어떻게 개입했고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상호 작용했는지, 다양한 신령들이 祈雨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祈雨祭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전통의 지속과 단절이라는 단선적 관점에서 한 걸음 나아가 역사는 끊임없는 누적과 해석의 과정을 지적하고 있어 흥미롭다.

73) 김경일/윤휘탁/이동진/임성모 공저,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 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2004, 17쪽.

中央史論 40집

해, 민간신앙을 통해 ‘관행’의 지속과 단절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다시 동북의 지역적 특성에 접근해보았던 것이다.

**주제어** : 중국, 동북지역, 민간신앙, 묘회, 이민, 샤머니즘, 기우제

(논문투고 : 2014.12.11 / 논문심사완료 : 2014.12.22 / 논문게재 확정일 : 2014.12.23)

附表-1 地方縣志를 통해 본 민간신앙의 양상(東北)<sup>74)</sup>

省別	縣志 (出版年度)	主要 內容
遼寧省	海城縣志 (1937)	天地, 門神, 灶神, 張仙, 觀音菩薩, 眼光娘娘 등을 숭배. 이상 張仙, 菩薩, 眼光娘娘은 여자가 섬기는 신령, 비록 各戶에 모두 보급된 것은 아니지만, 4~50%는 해당된다. 城隍, 土地, 火神, 財神, 藥王, 龍王, 山神, 河神, 九聖, 胡仙을 숭배. 이상 神仙은 모두 사회가 통틀어 믿는 것이고, 부차적으로 제사 지내는 신은 三霄娘娘, 子孫娘娘, 雷公, 電母 등이 있다. 許願(誓願)과 祈雨도 널리 행해진다.
	桓仁縣志 (1930)	祈雨; 巫覡; 神道로는 土地廟, 七聖祠, 山神廟, 狐仙堂이 향촌 도처에 있음.
	興京縣志 (1921)	賽團 - 廟會. 山神, 虫王; 祈禱 - 祈雨, 關帝와 龍王에게 제사를 지냄.
	鐵嶺縣志 (1933)	祈雨
	西豐縣志 (1938)	祈禱; 祈雨; 報祀; 愿心, 酬神
	莊河縣志 (1934)	跳大神; 燒香 - 농민의 개인적 기원; 老母, 天后, 娘娘, 藥王, 城隍, 牛王, 馬王; 胡仙.
	安東縣志 (1931)	神道 - 山神廟, 土地廟가 가장 많음.; 胡仙, 黃仙, 常仙도 숭배. ; 愿心; 燒香; 跳神.
	鳳城縣志 (1921)	水火, 胡仙, 衙神(縣署 설치), 獄神, 門神; 禱雨; 愿心; 燒香; 跳神; 送罩子(跳神과 같은 종류); 請茅姑(뒷간을 맡은 신)
	阜新縣志 (1934)	報賽 - 신령의 은덕에 보답하는 廟會(演戲酬神).
	義縣志 (1931)	土地, 山祀, 河神, 門神, 灶神, 財神, 九聖, 狐仙(黃仙, 常仙), 眼光娘娘, 其他各神(三霄娘娘, 子孫娘娘, 雷公, 閃母 등등) 숭배.; 許願; 求雨; 跳神
	北鎮縣志 (1933)	報賽 - 신령의 은덕에 보답하는 廟會(演戲酬神).
	黑山縣志	祭神 의식은 조상 제사와 대체로 비슷하다. 민간에서 제사 지내

74) 丁世良/趙放 主編, 『中國地方志民俗資料匯編(東北卷)』, 北京圖書館出版社, 1989.

省別	縣志 (出版年度)	主要 內容
	(1941)	는 신은 대개가 일치하지는 않는데, 집에서는 門神, 灶神을 숭배하고, 이밖에는 天地, 觀音菩薩을 숭배하고, 商家에서는 關帝, 財神을 숭배한다. 行業은 祖師를 숭배한다. 七聖祠는 火神 위주, 藥王, 虫王, 苗王, 馬王, 牛王, 財神을 從祀한다. 九聖祠는 龍王 위주로, 山神, 土地, 藥王, 虫王, 苗王, 馬王, 牛王, 財神을 從祀한다. 至聖先師孔子와 關岳은 國祀에 속하는 신이다.
	興城縣志 (1927)	紙造 - 몸 대신에 돈을 태워, 부처에 求福하는 것이다. ; 信巫 - 婦인이 무당을 믿는 것은 縣城이나 鄉村에서 모두 그렇다. 심지어 1개월 미만의 영아가 병이 나도 巫治를 부른다.
	朝陽縣志 (1930)	跳鬼(蒙族) - 蒙古 큰 사찰에서도 굿판을 벌인다. ; 佛喇嘛(蒙族)
吉林省	長春縣志 (1941)	神教 - 報賽로 祈福한다. 關帝廟, 碧霞元君廟(속칭 娘娘廟)가 매우 성황을 이룬다. 虫王, 龍王, 馬王 各祠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다. 巫覡이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미신을 타파하기가 더욱 어렵다.
	農安縣志 (1927)	漢族 ; 回族 - 回族의 습관은 漢族과 조금 다르다.
	盤石縣鄉土志 (1937)	還願 - 미신이 많고, 전염병이 돌면 무당을 불러 굿판을 벌여 대처함.
	海龍縣志 (1937)	海龍縣에는 滿洲族과 漢族이 섞여 거주하여 동화된 세월이 오래 되어, 祭典에는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도 있다. 돼지를 잡아 신령의 보우하심에 보답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를 일러 '還願'이라고 하였다. 祈雨 ; 跳神 ; 燒香(속칭 跳單鼓神)
	臨江縣志 (1935)	祈雨 ; 神道 - 山神廟, 土地廟, 狐仙堂이 도처에 있다. ; 跳神
	輯安縣志 (1931)	巫醫 - 향촌 사람들은 병이 나면 대부분 무당을 믿지 의사를 믿지 않는다.
	梨樹縣志 (1934)	복을 치며 무당춤을 추며, 나무 장대(神竿)를 숭배함.
	西安縣志略 (1911)	關帝, 龍王, 娘娘廟 등을 숭배한다. 병이 나면 남자 무당에게 요청해 굿판(跳大神)을 벌인다.
	東豐縣志 (1931)	跳神 ; 祈雨 ; 占卜 ; 燒香 - 胡仙, 黃仙을 숭배함.

省別	縣志 (出版年度)	主要 內容
黑龍江省	龍城舊聞 (1919)	祈雨 - 龍神 숭배; 禳病 - 푸닥거리로 병을 고칠 때는 巫祝을 이용한다. 한족 출신은 이를 “燒太平香”이라고 하고 滿洲에서는 굿을 중시해서 ‘跳太平神’이라고 한다. 3월 3일과 9월 9일은 굿관이 벌어지는 날이다.
	呼蘭縣志 (1920)	祭禮 家祭 - 漢族; 滿族; 漢軍; 蒙古; 祭禮 墓祭 - 漢族; 滿族; 回族 祈雨; 跳神
	双城縣志 (1926)	滿人祭禮; 漢軍旗人祭禮; 漢人祭禮 土地, 山神, 河神, 門神, 灶神, 財神, 九聖, 狐仙, 眼光娘娘, 張仙, 其他各神(三霄娘娘, 子孫娘娘, 雷公, 閃母 등) 숭배. 許願(愿心); 求雨; 跳神
	賓縣縣志 (1964)	祭禮 - 漢人은 祖堂에 제물을 받치고 분향한다. 天地, 門, 灶에 긴 향을 피운다. 滿洲人の 제사는 漢族과 다르다. 만주인의 제사는 ‘祭祖’와 ‘祭星’이다. 祭星은 곧 祭杆이고 祭天이다. 漢軍旗人の 조상 제사는 ‘跳單鼓神’이 포함되어 있다.
	綏化縣志 (1920)	祈禳 - 漢族과 滿洲族의 신에게 기도함이 대략 같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龍王廟와 關帝廟에 모여 분향하여 기원하고 香亭을 들어 올린다. 위에는 神牌를 두고, 교외 지역을 巡行한다. 무리는 모두 신발을 벗고, 버드나무 가지를 모자에 꽂아, 비가 내리는 형상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求雨’이다. ‘禳病’도 한족과 만주족이 크게 다르지 않다. 무당을 불러 굿관을 벌인다.
	望奎縣志 (1919)	祈禱 - 병이 났을 때 巫覡을 부른다.; 祈雨; 習慣
	安達縣志 (1936)	跳神; 祈雨; 燒香
	寧安縣志 (1924)	祭禮 - 漢族 및 滿族: 한족은 특별한 것이 없고, 滿族은 공동의 조상에 제사 지내고, 장대에 제사(祭杆)를 지낸다.; 回族
	東寧縣志略 (1920)	迷信 - 跳神, 占卜.
	寶清縣志 (1964)	神道 - 土地, 山神, 灶神, 門神, 財神, 狐仙, 眼光娘娘, 張仙, 其他 - 三霄娘娘, 子孫娘娘, 催生娘娘, 送生娘娘, 豆娘娘 등. 許願 및 還願; 求雨; 跳神

省別	縣志 (出版年度)	主要 內容
	瓊瑋縣志 (1920)	祈雨; 禳病 - 푸닥거리로 병을 고칠 때는 巫祝을 이용한다. 한족 출신은 이를 “燒太平香”이라고 하고 滿洲에서는 굿을 중시해서 ‘跳太平神’이라고 한다. 3월 3일과 9월 9일은 굿관이 벌어지는 날이다.

附表-2 地方縣志를 통해 본 민간신앙의 양상(華北)<sup>75)</sup>

省別	縣志 (出版年度)	主要 內容
北京市	順天府志 (1902)	祈雨
天津市	天津志略 (1913)	전염병(種痘)
河北省	薊縣志 (1944)	日月蝕 - 救護儀式(태양을 구원하는 의식)
	晉縣志 (1927)	日蝕; 月蝕 - 救護儀式(태양을 구원하는 의식)
	藁城縣志 (1698)	日蝕, 月蝕 - 救護儀式(태양을 구원하는 의식)
	口北三廳志 (1758)	귀신을 경외하고, 점복을 믿는다. 귀신을 경외하고, 天地, 日月, 星辰, 山川 및 先大人을 제사한다.
	蔚州志 (1877)	會醮 - 모금하여 함께 廟會를 개최함. 其他 - 백성은 巫鬼를 믿어, 질병이 나면 巫覡을 불러, 복을 두드려 신령을 맞이한다. 이로써 신령의 보우하심을 기원한다. 가뭄이 들면 버드나무를 머리에 꽂고, 열을 지어 행진을 해 龍神을 영접한다.
	蔚縣志 (1739)	會醮
	張北縣志 (1935)	謝土; 領牲; 卜筮; 星相; 堪輿; 巫蠱; 廟會
陽原縣志	祀神 - 天地, 至聖先師孔子, 玉皇大帝, 五路財神 등을 숭배한다.	

75) 丁世良/趙放 主編, 『中國地方志民俗資料匯編(華北卷)』, 北京圖書館出版社, 1989.

省別	縣志 (出版年度)	主要 內容
	(1935)	天地는 모든 백성이, 龍神은 농민이, 財神은 상인이 주로 섬긴다. 孔子; 關岳; 城隍; 天地; 灶神; 五道; 土地; 泰山; 閻羅; 龍神; 魯班; 馬王; 財神; 醫巫; 占卜; 命相
	懷安縣志 (1934)	부녀들의 경우, 병이 생기면 巫婆에 의존한다.
	萬全縣志 (1934)	卜筮; 預兆; 星相; 堪輿; 巫蠱; 宗教; 迷信 - 狐仙, 馬王 등 숭배함.
	承德府志 (1887)	귀신을 경외하고, 占卜을 믿는다.
	玉田縣志 (1889)	巫祝
	滿城縣志略 (1931)	祈雨 - 버드나무를 머리에 꽂고, 열을 지어 행진하면서 龍王에게 비오기를 기원한다. 비가 내리면 演劇으로 보우하심에 보답하는 데, 이를 “謝雨”라 한다.
	滄縣志 (1933)	鄉民祈雨
	交河縣志 (1916)	日月蝕 - 救護儀式(태양을 구원하는 의식)
	南皮縣志 (1933)	祈雨
	鴻澤縣志 (1766)	향촌에서 社를 결성해 廟會(賽神)를 열고, 봄에는 풍년을 기원하 고 가을에는 신령에 보답한다. 神廟에서 演戲를 열어 酬神한다.
	武安縣志 (1940)	神權을 迷信함 - 城隍, 龍王, 文昌, 呂祖, 土地, 送子娘娘, 財神, 瘟神, 灶神(灶君), 狐仙을 숭배한다. 風水를 迷信함.
	新河縣志 (1929년)	祈雨; 家庭의 신령 - 天, 地, 人(三皇), 석가모니, 南海菩薩, 關羽, 財神, 門神, 宅神, 倉神, 灶君, 牛馬王, 地藏王, 青龍, 白虎, 張仙. 村鎮廟觀 - 全神廟, 東嶽廟, 泰山聖母廟, 天齊廟, 天宮地母廟, 八 蜡廟, 火神廟, 三教堂, 全聖廟, 三聖廟, 五聖廟, 九聖宮, 七聖廟, 大聖廟, 三官廟, 三大土廟, 三皇廟, 天地廟; 佛爺廟, 如來廟, 大悲 廟, 白馬天將廟, 九蓮廟; 關帝廟, 孔子廟, 周公廟, 太公廟, 三義廟, 二郎廟, 后稷廟, 土地廟, 文昌廟, 東陽廟, 玄武廟, 眞武廟, 玉皇廟, 人祖廟, 慈光廟, 菩薩廟,

省別	縣志 (出版年度)	主要 內容
		觀音堂, 送子觀音廟, 王靈官廟, 府君廟, 金龍大王廟, 劉秀廟, 龍王老張廟, 龍王廟, 瘟神廟, 十大名醫廟, 藥王廟, 白玉廟, 牛王廟, 馬王廟, 虫王廟, 九神廟, 七神廟, 財神廟, 路神廟, 張仙廟, 天仙廟, 大仙廟, 白衣庵,
	廣宗縣志 (1933)	迎神報賽, 演戲修醮
	榆次縣志 (1863)	가뭇이 들면 신령에게 기원, 두 마을이 서로 신령을 보내고 맞이 하는데 일리 ‘神親’이라고 한다. 龍神이나, 狐大夫, 李韋公, 麻姑, 小大王 등에게 祈雨한다. 一廟의 神 모두에게 청하기도 하는데, 이를 “請后神”이라고 한다.
	榆社縣志 (1881)	救護日蝕 - 救護儀式(태양을 구원하는 의식) 祈禱 - 가뭇이 들어 城隍廟에 壇을 세운다.
	翼城縣志 (1929)	귀신을 迷信하는 습속이 오래되어, 村마다 廟가 있고 戶마다 神이 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정월 초하루에 여는 廟會로 社를 조직해 迎神한다. 演戲賽會의 일은 평시에 대부분 행하고 있지만, 村村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沃史 (1668)	會醮 - 무릇 城市, 鄉村의 寺觀과 廟宇는 설날, 정월 대보름, 清明 등의 날에 돈을 거두어 각종 활동을 벌인다. ; 또한 里社가 있어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한다. 幼習 - 어리석은 습속, 특히 부녀가 더욱 巫覡에게 ‘問神’하는 일. ; 女誠
山西省	隰州志 (1709)	賽(廟會) - 神廟에 많은 사람이 모여 神前에서 歌舞를 즐기는 것을 賽라고 한다. 南門의 東嶽廟는 3월 28일, 西門 三義廟는 4월 초파일, 北門 龍王廟에서는 4월 13일에 개최한다.
	浮山縣志 (1935)	廟會
	襄陵縣志 (1923)	廟會 - 城隍廟, 二郎廟, 火神廟, 娘娘廟, 東嶽廟, 關帝廟, 財神廟, 龍王廟, 藥王廟에서 개최한다.
	聞喜縣志 (1919)	賽神(廟會) - 보리 추수가 지나고, 창고가 가득하니, 조금 큰 마을에서는 모두 演戲를 열어 酬報한다.

附表-3 '사회경제조사'를 통해 본 민간신앙의 양태<sup>76)</sup>

省別	縣別	內容
遼寧省	豐寧縣	4월 1일, 屯內의 娘娘廟에서 열리는 祭典, 老老男女가 모여 성대하게 행한다. 1926년에는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演戲와 高脚子를 거행하지 못함.
	蓋平縣	祭는 1월 15일에 행하는데, 때때로 演戲를 베풀기도 한다.(10년 4번 정도) 가뭄이 들어 비를 기원하거나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때에 맞추어 거행한다. 演戲를 거행할 때는 비용을 엄출한다. 농민의 수확에서 거두기도 한다. 대표자는 村長으로 한다.
	西豐縣	本屯에는 土廟가 있지만, 별도로祭는 없다. 縣城이나 屯外의 廟에서 축제가 있을 때는 나가서 참배한다. 土廟의 축제는 年末, 三月節, 七月節, 八月節 등에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쳐 참배한다. 기타 祈雨祭라도 드릴 경우에는 白石村에 있는 廟에 참배해 기원하고, 풍년에 대한 感謝祭를 드리거나 蟲害에 대한 迷信에 근거해 기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이다. 이런 제사는 白石村長이 주축하여 거행하고, 비용은 富農의 기부에 의거하는 경우가 많다.
	梨樹縣	本屯에서는 廟가 마련하는 祝祭는 하지 않는다. 端午節, 仲秋節, 年末, 正月 등에 屯民은 각자 서로를 대접해 먹는다. 廟會는 없다. 屯內의 土地廟에서 祈雨를 행한다. 비용은 약 100엔 정도이다. 비가 내리게 되면 2~30엔 정도의 비용을 요한다. 해당 비용은 경작지 면적에 따라 안배한다. 대표자는 村長이 한다.
	海龍縣	平安村의 廟에서는 4월 18일에 廟會를 연다. 大平村, 安樂村의 善男善女가 모여 분향한다. 이밖에 臨時로 祈雨, 豐年 등을 위해 농민이 기원하는 것이 있다. 平安村의 廟는 光緒 20년(1894)에 郡道인 사람이 부근에 권면하여 숲을 모아 건립하였다. 남은 金으로는 烟을 매입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廟의 비용을 충당한다. 기본 재원으로 매년 지출한다.
	綏中縣	廟의 祭禮는 娘娘廟, 關公廟, 孔子廟 등에서 연다. 娘娘廟에서는 高足躄이 개척된다. 농촌에 있어서는 祈雨의 때나 害蟲이 생겼을 경우에 廟 등에서 기원하는데, 그 경우는 演戲를 개척한다. 돼지 등을 잡아 희생으로 바치고, 그 영혼을 기다리는 것이다. 비용은 농민 전체가 부담하고, 특히 富農이 대접하는 일은 없다.

76)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第9~12冊,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5.

省別	縣別	內容
		<p>屯內에 祠가 하나 있는데, 祭는 행하지 않는다. 土地神(七聖祠)인데 光緒 5년(1879) 10월 2일에 설립된 것이다. 娘娘廟會는 4월 18일에 행해지는데, 이것은 興城縣과 綏中縣 경계 지역, 즉 15滿里 떨어진 곳에 廟가 있다. 이 廟會에 本屯의 절반 이상이 참여한다. 이밖에 4월 28일에 열리는 第2區 萬寶山의 藥王廟會에도 屯民이 참석한다. 만약 가뭄이 든 경우에는 祈雨를 위해 土地祠 앞에서 1戶마다 1인이 순차로 祈雨를 한다.</p>
	黑山縣	<p>元宵節, 端午節, 燈節(7월15일), 仲秋節, 年關, 虫節祭(6월7일) 등을 행한다.</p>
	盤山縣	<p>屯內에 廟가 없기 때문에 廟會도 없지만, 단 하나의 土廟에서 1년에 3회, 즉 7월 15일, 8월 15일, 정월에 미신적으로 참배하는 정도이다. 祈雨는 屯民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행하지만, 이 경우에도 富農이 屯民에게 술이나 음식을 대접하지는 않는다.</p>
	庄河縣	<p>本屯의 南方으로 2滿里에 지점에 오래된 2基의 祠가 있다. 이제는 비바람에 삭아 겨우 서 있을 정도로 낡았다. 祭神은 馬王, 牛王, 虫王, 龍王, 犬王 및 天帝, 土帝, 水神의 8体이다. 2곳의 祠에서 1월 1일과 15일, 2월 2일, 7월 15일, 10월 1일에 향을 피우고, 만두를 진상하는 의례를 행한다. 이는 屯 전체로 거행하는 것은 아니고, 各人이 알아서 참배하는 방식이다.</p> <p>이밖에 山中에 나무나 돌을 숭배하는 祠가 있는데, 蠶場을 지키는 神으로서 때때로 만두를 바친다. 연중행사로서는 正月, 龍頭節, 端午節, 仲秋節, 年關 5개가 있다. 祈雨는 3월 中旬 本屯에서 서쪽으로 數滿里에 있는 鍾魁廟에서 莊東村의 祈雨가 행해진다. 그 때 비용은 1戶마다 1~2角, 경작자는 3圓을 징수한다.</p>
吉林省	扶餘縣	<p>정월 대보름, 廟에서 향을 지피고, 만두, 술, 음식을 예물로 제사를 지냄. 端午節과 仲秋節에는 각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논다. 5월 15, 16일 저녁에는 쯔쌀과 석유를 섞어 마당이나 무덤 옆에 뿌리고, 불을 붙여 태운다. 仲秋節은 마당에서 달이 나오기 전에 月餅을 바치고, 線香을 태워 月出을 기다린다. 달이 나오면 종이를 태우고(燒紙), 가족 전부가 예배한다.</p> <p>祈雨는 가뭄이 들었을 때 大地主가 주최자가 되어, 농민을 전부 廟로 모아, 술과 만두를 바치고, 線香을 태워 기도하고, 祭文을 태워, 祈雨祭를 행한다. 나중에 비가 내리면, 돼지 한 마리, 만두, 술을 바쳐 演戲祭禮를 행한다. 演戲는 지주, 자작농, 소작농이 면적에 따라 할당하여 비용을 부담한다. 이 祭를 올릴 때, 地主群은 雇農群에게</p>

근대시기 중국동북지역 민간신앙의 '복합성'

省別	縣別	內容
		<p>술과 만두를 대접한다.</p> <p>土地廟의 祭禮에 참배하는 것은 정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나머지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루에 3번 참배해 향과 종이를 태우고 곡을 한다. 이렇게 해야 死者의 영혼을 廟에 居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土地廟에서는 山神, 財神, 虫王, 馬王, 關聖帝君, 龍王, 火德眞君, 牛王, 苗王, 五道君 등의 位牌를 모셔놓았고, 벽에는 龍王 그림을 중심으로 좌우에 各神의 형상을 묘사한 그림이 걸려 있다.</p>
黑龍江省	泰來縣	<p>불교와 샤머니즘이 대세이고, 신앙 정도는 매우 깊다. 조상과 신령에 대한 제시는 연말에 1회 정도 할 뿐, 평상시에는 하지 않는다. 家廟나 村廟도 지극히 적고, 승려도 없다.</p>
	洮南縣	<p>정월 대보름, 端午節, 仲秋節에 各家가 서로 음식을 대접하며 논다. 정월 대보름 저녁에는 黃表紙를 태운다. 祈雨는 풍작을 기원하는 의미이다.</p> <p>本屯에는 土地廟 1개가 있는데, 여기에 土地神, 山神, 苗王, 牛王, 龍王, 馬王, 虫王, 財神, 五道の 位牌가 놓여 있다.廟에 참배하는 것은 매월 1~15일에 한다.</p> <p>屯民이 모두 참배하는 것은 祈雨, 元宵節(대보름)이다. .... 屯內 祈雨의 경우, 필요한 비용은 소유 토지의 면적에 따라 할당하여 징수함. 富農은 특별히 음식을 대접하는 정도이다.</p>

## 참고문헌

### 『盛京時報』

丁世良/趙放 主編, 『中國地方志民俗資料匯編(東北卷)』, 北京圖書館出版社, 1989.

丁世良/趙放 主編, 『中國地方志民俗資料匯編(華北卷)』, 北京圖書館出版社, 1989.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全27冊),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5.

『中國地方志集成·山西府縣志輯-民國鄒平縣志』, 鳳凰出版社, 2005.

瀧澤俊亮, 『滿洲の街村信仰』, 滿洲事情案內所, 1940, 217쪽.

남주성 역주, 『欽定滿洲源流考(下卷)』, 글모아, 2010.

김경일/윤휘탁/이동진/임성모 공저,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 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2004.

박경석, 「민국시기 동북지역의 민간종교결사와 지방당국의 대응」, 『중앙사론』 제39집, 2014.6.

尹輝鐸, 「'邊地'에서 '內地'로 : 中國人 移民과 滿洲(國)」, 『中國史研究』第16輯, 2001.12.

이윤석, 「중국 근세의 祠廟와 지방 통치 - 全國通祀 및 神像存廢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제119집, 2012.6.

전인갑/장정아, 「중국 관행 연구와 중국 연구의 재구성 - 試論的 接近」, 『中國近現代史研究』 제48집, 2010.12.

曹貞恩, 「崇拜와 禁止 : 清代 福建의 五瘟神 信仰과 國家權力」, 『明清史研究』 제27집, 2007.4.

최준, 「중국 동북지역의 민간신앙」, 『중앙민속학』 제12호, 2007.

- 江沛, 「近代華北城鄉民間信仰述評」, 『河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27卷 第4期, 2002.
- 杜臻, 「近代山東移民對東北文化的影響(1860~1911)」, 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5.
- 劉峰, 「清代民間的酬神演戲和迎神賽會」, 『湖南城市學院學報』第32卷 第6期, 2011.11.
- 劉揚, 「近代遼寧地域社會視野下的寺廟文化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2011.12.
- 馬新, 「關於民間信仰史研究中的幾個問題」, 『民俗研究』2010年 第1期.
- 範立君, 「近代東北移民與社會變遷(1860~1931)」, 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5.
- 邵小翠, 「試論近代移民對東北文化的影響」, 延邊大學 碩士論文, 2010.5.
- 深尾葉子/安富步, 「廟に集まる神と人」, 『滿洲の成立』, 名古屋大學出版會, 2009.11, 263頁.
- 王健, 「近年來民間信仰問題研究的回顧與思考:社會史角度的考察」, 『史學月刊』2005年 第1期.
- 王虹波, 「民國時期東北地區的巫術救荒-以盛京時報記載為中心的考察」, 『求索』2010-6.
- 王曉翠, 「民國時期中西醫論戰研究」, 曲阜師範大學 碩士論文, 2010.4.
- 張士尊, 「清代東北移民與社會變遷:1644-1911」,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3.4.
- 趙英蘭、劉揚, 「清末民初東北民間祈雨信仰與社會群體心理態勢」,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第51卷 第5期, 2011.9.
- 朱敏為/王繁可/趙晶晶/李柳, 「明朝對巫醫的批判研究」, 『湖北中醫藥大學學報』第15卷 第6期, 2013.12.
- 沈洁, 「反對迷信與民間信仰的現代形態——兼讀杜贊奇“從民族國家拯救歷

史”』,『社會科學』2008年 第9期.

沈洁,『反迷信與社區信仰空間的現代歷程——以1934年蘇州的求雨儀式爲例』,『史林』2007年 第2期.

修冬 主編,『中國東北史(修訂版) 第4卷』,吉林文史出版社,2006.1.

黃雲鶴,『清至民國時期的東北民神』,『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2007年 第3期,2007.6.

## 近代中國東北地區民間信仰的‘復合性’ —以移民流入帶來的民間信仰的移植和融合為中心—

朴敬石

本稿分析了近代以來東北地區民間信仰的地域特色。首先，可以看出清末的移民增多和東北地區民間信仰的發展有著非常密切的關係。和各種‘既成宗教’或‘民間宗教結社’一樣，民間信仰大概也是和移民一起從關內流入的。通過在崇拜對象或祠廟，廟會等方面移植、複製關內的民間信仰，東北地區形成了新的宗教信仰。

但是，近代東北地區的民間信仰不是單純的從關內移植和複製而形成的。關內流入的民間信仰和東北固有的信仰體系及自然地理條件相互作用從而出現了東北地區民間信仰自有的地域性。首先，在關內的民間信仰的流入擴散過程中，東北固有的薩滿教也相當活躍。第二，關內的民間信仰和東北地區重迭積澱，根據影響程度的不同體現出明顯的地域差異，反映了東北固有的地域情況。第三，關內的神祇不是依次取代現有的神祇流入的，而是重疊流入的。由於移民的涌入，對信仰的需求多樣化，從而出現了濃厚的‘多教一廟及一人多教’的狀況。第四，森林地帶廣袤的東北地區由於自身自然地理因素的影響，也出現了重視動物神等自然崇拜的傾向。

最後，移居和東北移民帶來的信仰，作為收容方的東北原有的信仰體系，自然地理環境的特點，以及移民在東北所處的社會環境，這些因素相互作用，通過‘復合化’這一過程，其結果具有了自己獨特的‘復合性’。如此，關內的信仰在不同的方向性相互作用下共存，可以看出這種共存是外來和當地融合成的一種形態。這不是傳統的持續或中斷的單線發展過程，而是根據現實需要‘不斷累積的解析’的歷史過程。

東北地區形成并經歷了充滿离散，定居，流离，逃逸，彷徨的文化認同，考慮到這一過程的歷史性和現代性。作為“慣行”的民間信仰，經歷了近代的再構成過程，本稿將這一過程和充滿多种矛盾，飄搖的近代東北社會的變化相結合，進行了綜合的考察。伴隨着清末以來的大規模移民，關內的傳統在空間上轉移到東北地區，體現了近代的再構成過程。即，由傳統到近代的過程中，持續和中斷的時間性變化在東北得到了在空間上發展。

**關鍵詞**：中國，東北地區，民間信仰，廟會，移民，薩滿教，祈雨祭